地理敎育論集, 24, 1-24, 1990. 12

實在論의 地理學的 含意와 空間의 相對的 自律性에 관한 硏究

李 相 一*

Ⅰ. 序 論

1. 問題提起 및 硏究目的

학문적 사회 안에서, 각 학문들은 연구주제와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그 학문간 경계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다분히 다공적인(porous) 연결통로를 갖는다.[1] 그러한 연결통로는 각 학문들의 연구결과의 선택적 호환성이나 인접학문이라는 학문성격상의 친화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제학문 영역을 관통하는 認識論, 存在論, 方法論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다 명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전반을 걸쳐 사회과학 탐구의 토대가 된 과학철학은 論理實證主義이다. 논리실증주의 철학의 지리학에의 도입은, 1950년대의 핫숀과 셰퍼의 논쟁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리학으로 하여금 '例外主義(exceptionalism)'라는 비판을 벗어나게 하면서 '空間科學'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지리학을 이행시켰다. 논리실증주의 인식론은 명백히 경험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경험들 중 논증적 증거(verifiable evidence)로써 굳게 성립된 경험을 가지고 존재론을 구성한다. 방법론은 소위 '科學的 方法'이라고 알려진, 사실에 충실한 언명을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2]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의 지리학에의 도입은 그 방법론 상에 통계학적 근거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計量革命'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가끔 토마스 쿤식의 '파라다임상의 轉換'으로 일컬어 진다.

그러나 실증주의의 도입은 사회과학 전반의 반실증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空間 物神主義(spatial fetishism)', 혹은 '空間主義的(spatialist)', '空間分離主義的(spatial separatist)'인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즉, 공간이 공간 자체의 논리를 가진다는 추상적, 절대적 공간의 강조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실증주의의 경향은 이른바 '人間主義的 接近(humanistic approach)'[3], '構造主義的 接近(structuralist approach)'[4]의 두 갈래로 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비판적 관점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 접근은 모두 '還元主義(reductionism)'로 비판받고 있다. 즉, 인간주의는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으로, 구조주의는 생산양식과 계급구조로 환원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가지 범주의 科學哲學, 혹은 접근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리학과 결합되었으며 Johnston이 지적하듯 '세개의 지리학(three geographies)'으로 인식 가능할 만큼 심한 논리적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5] 이들 중 특히 실증주의적 접근과 정치경제학적 접근 사이의 논쟁은 그 성격상 특히 대립적이다. 양 접근법의 인식론적 차이는 사회와 인간이라는 전통적 이분법을 연관짓는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실증주의는 행위를 규범적 이론의 전개를 위해 가정하거나, 외연적으로 표현된 관찰가능한 것에 한정하며, 그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동기와 동일시 하는

* 서울大學校 大學院 地理敎育專攻

1) R.J. Johnston, *Philosophy and Human Geography*, London: Edward Arnold, 1983, p. 1.
2) *Ibid.*, p. 5.
3) 일반적으로 인간주의적 접근은, 觀念論(idealism), 現象學(phenomenology)과 그 분파인 解釋學(hermeneutics), 그리고 實存主義(existentialism)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4) 여기서 구조주의적 접근은 맑시즘에 기반을 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Johnston, *op. cit.*, p. 123.

반면 구조주의는 총체적 토대로서의 생산양식과 계급구조의 반영으로 인간행위를 파악한다.

그런데 사회와 인간의 관련방식에 대한 논쟁은, 사회와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지을 것이냐의 문제에서 보다 명백해 진다. 실증주의지리학은 많은 경우, 공간이 그 자체의 거리함수라는 인과력을 통해 여타 제현상들에 대해 독자적인 설명을 가할 수 있다고 보며,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공간은 사회적 과정의 반영체이거나 담지체(bearer)일 뿐 그 자체로서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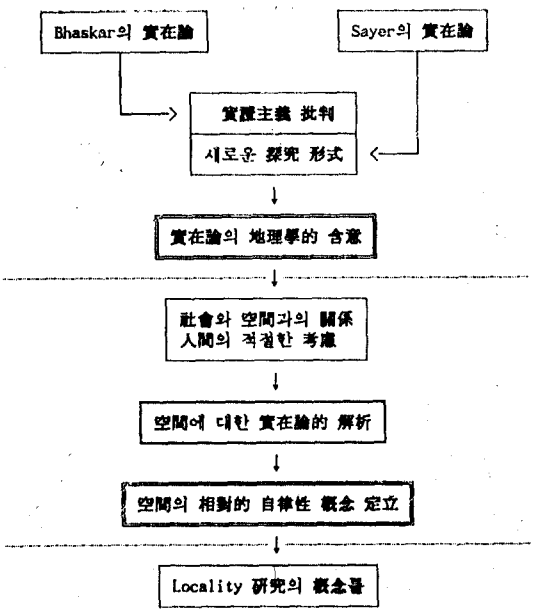
이러한 대립의 화해 가능성은 거의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각 접근법은 방법론이나 분석적 근거 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차이 위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접근법을 접합함으로써 통합으로 가려는 시도는 소박한 折衷主義(naive ecleticism)에 불과하다. 이러한 절충의 불가능성 뿐만 아니라 실증주의 지리학과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어느 쪽도 사회와 인간 그리고 공간을 연결짓는 방식에 있어서 타당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 접근법은 새로운 철학적 대안에 의해 극복되어야만 한다. 또한 새로운 철학의 기초하에서 사회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명료화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업은 결국 사회에 대한 '空間의 相對的 自律性(relative autonomy of space)'이 궁극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새로운 과학철학적 대안으로서 실재론을 개괄하고 그것의 지리학적 함의를 검토한다.

둘째, 철학적 대안 속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을 '공간'개념 자체에 있다고 보고, 공간과 사회를 관련짓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과학철학으로서의 실재론의 관점하에서 재정립한다. 이것을 통하여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지리학의 존재론(ontology) 혹은 對象(objects)과 主題(subjects)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 研究方法 및 制限點

본 연구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과학철학으로서의 실재론에 대한 개괄과 그것의 地理學的 含意에 대한 논의이다. 이것은 Bhaskar와 Sayer에 의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Bhaskar의 실재론은 주로 실증주의 과학철학의 비판과 존재론에 대한 논의이며, Sayer의 실재론은 방법론적 정교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지리철학으로서 실재론이 가지는 함의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지리학에 있어서의 '공간'의 문제를 개괄하고, 공간에 대한 實在論的 解析을 바탕으로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개념을 정립하려는 논의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locality연구의 개념틀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논의의 틀

위의 그림은 연구의 기본적틀을 도해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공간'을 둘러싼 논쟁에 관심의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공간관의 기저에 있는 과학철학 자체의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불가피하게 제외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세가지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 각 철학내의 다양한 견해가 상당히 단순화될 수 있다. 즉, 논자가 인용하게될 인물에

의해 그 철학전반이 대표될 수 있다.

둘째, 사회와 공간의 '關聯方式'에 초점을 마춤으로서 그 '사회'라는 개념의 '內容'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예컨대 '構造'라는 용어의 존재론적 가치에 대한 명백한 지적이 있다하더라도 현대 사회의 구조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밖에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세째, 논의를 실증주의, 구조주의, 실재론에 집중함으로써 소위 인간주의 접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거의 배제될 것이다. 이것은 이 논의가 가지는 커다란 한계를 구성할 것이다.

Ⅱ. 實在論의 地理學的 含意

1. 旣存 地理學 方法論의 批判

지리학은 '공간' 그 자체의 가치를 학문적 존재론으로 상정한 실증주의 지리학의 도래와 그것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반론간의 계속적인 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혼란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혼란은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실증주의 지리학이 뒤에서 논의될 실증주의 자체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증주의 사회과학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이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비판의 원천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 '공간'을 사회과학적으로 다룬다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혼란의 가능성이 정치경제학에서도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 있다는 것이다. '社會的 現象'을 실증주의 사회학이 다룬다는 것과 '空間的 現象'을 실증주의 지리학이 다룬다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속성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실증주의 지리학이 추상적, 형태론적 공간을 여타 다른 사회과학이 학문의 대상으로 지목한 사회, 인간, 경제, 심리 등과 동일한 존재론적 층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의 결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런 작업을 통하여 '공간'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증주의 지리학은 그것이 體系理論(system theory), 人間 生態學(human ecology), 行態主義(behaviorism) 등과의 결합을 통하여 세련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추상적 공간 자체에 대한 가치부여에서 보다 후퇴한 경향을 보여온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공간적 패턴을 비공간적인 사회경제적 요소로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따라서 관심의 핵심이 社會的 現象의 空間的 具顯으로 전이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의 전이는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의 일치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일단의 경향을 초래하게 했으며 나아가 공간형태로부터의 추상을 일반적인 방법론의 내용속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도화를 통한 공간형태의 확인과 그것으로부터 사회적 과정을 추상하는 과정은 논리적 필연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그것의 설명을 위해 동원된 사회적 과정이란 것도 관찰 가능한 사회현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데 그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공리가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와 공간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세째, 인간을 어떻게 다룰것이냐의 문제이다. 특히 초기의 실증주의 지리학에서 인간은, 규범적 공간이론 구축을 위해 이상적으로 가정되었다. 고전 입지 이론에서 보이는 '합리적 행위자', '욕망 극대화자'로서의 인간은 행태주의가 지리학에 도입된 후에는 '만족자'로서의 인간으로 그 경직성이 완화되었으며 인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공간적 인자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의사결정이란 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가정되었으며, '공간행태'의 연구에서는 현상으로 표현된, 즉, '행동된' 행위를 그들의 의지와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지리학 분야에서 사회적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주체의 역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려도 사회구조와 필연적으로

관계지워진 인간의 의식, 동기, 행동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와는 많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을 가정하려는 초기 실증주의의 경향이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자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자본제적 생산양식의 필연적인 사회구성체로서의 계급구조로부터 연역된 인간상에 의해, '假定'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회와 공간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부적절한 고려의 산물이다. 모든 사회과학적 탐구에서 인간은 '가정'될 것이 아니라 '說明'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의 혼란은 실증주의와 정치경제학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각 접근법이 지리학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자는 사회, 인간, 공간이 모두 포괄되어 다루어 질 수 있는 인식적 틀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논하는데 실재론은 매우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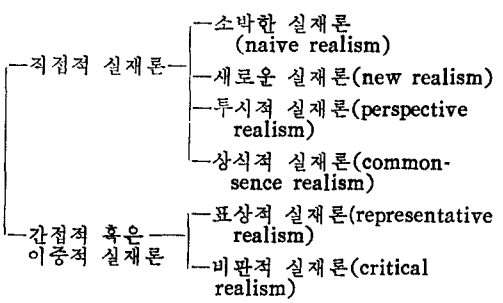
2. 實在論의 槪觀

사회과학은 그 위상에서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사회과학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자주 미심쩍은 것으로 드러나며 적대적인 것이기 까지 하다. 또한 사회과학은 사회적 탐구에의 적절한 접근이 무엇으로 구축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의해 심각하게 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과학 철학상의 불확실성은 과학적 객관성과 진보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점증되는 의심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6] 즉,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진정 '科學的'일 수 있느냐의 질문과 관련된 회의이다.

이러한 회의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적 방법론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反自然主義(anti-naturalism)'적 경향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명백히 사회과학 철학으로서의 실증주의에 대한 신뢰의 하락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반자연주의의 경향은 70년대에 그 도약을 시작했으며 그 중의 하나로 실재론이 이해되고 있다.[7] 따라서 실재론의 사회과학에의 도입을, 과학철학상의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실증주의와의 대비를 통하여 개괄함으로서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철학사의 초기에, 특히 중세사상에서 실재론이란 용어는 名目論(nominalism)에 대한 반대로써 사용되었다.[8] 즉, '물질적 대상은 우리의 외부에 있으며 우리의 지각 경험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9]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의 명목론에의 반대는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며 관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실제계란 없다.'고 주장하는 觀念論(idealism)[10]에 대한 반대가 된다.

따라서 명목론과 관념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철학적 전통은 실재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존재론적 객관성에의 이러한 주장은 그것이 다양한 인식론적 견해와 결합되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변용되어 왔는데, 그러한 변용은 실재론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형태를 취한다. Hirst는 이러한 변용을 크게 직접적 실재론(direct realism), 간접적 혹은 이중적 실재론(indirect or dualistic realism)으로 나누고 각각의 대분류에 몇개의 하위 실재론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는



〈표 1〉 실재론의 다양성

6) A. Sayer, *Method in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Hutchinson, 1984, p.11.
7) W. Outhwaite, *New Philosophies of Social Science: Realism, Hermeneutics and Critical Theory*, Macmillan Education LTD. 1987.
8) R.J. Hirst, "Realism," in P. Edward,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78, p.77.
9) *Ibid.*, p.77.
10) L. Guelke, "Idealism," in M.E. Harvey and B.P. Holly, *Themes in Geographic Thought*, St. Martin's Press, 1981, p.133.

데 그것은 앞의 표와 같다.

이렇게 다양한 실재론적 전통은 그것이 근대 과학철학과 결부되면서 科學的 實在論(scientific realism)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 설명의 형태와 형이상학의 문제를 포괄하는 하나의 과학철학으로서의 실재론을 언급하는데 사용된다.

과학적 실재론의 태동은 Harré[11], Keat & Urry[12], Bhaskar[13], Sayer[14]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최근에 논의되는 실재론은 바로 이러한 과학적 실재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재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자연주의에 대한 실재론의 견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연주의'란 '사회이론은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과학적일 수 있다'는 것[15]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方法論的 統一性(methodological unity)'을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의 건너편에 있는 것이 소위 반자연주의이다. 이것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른 방식의 철학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 포함된 견해들에서 보이는 일반적 가정은, 그것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자연과학의 올바른 탐구방식은 실증주의라는 것이다. 즉, 자연과학을 실증주의와 동일시하고 자연주의에의 반대를 실증주의에의 반대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만일 자연과학이 실증주의가 아닌 다른 과학철학에 의해 구축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학철학이 사회과학에도 적합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실재론은 自然主義의 可能性을 인정한다. 그리고 실재론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에 대한 것이며 더 나아가 소위 반자연주의적 경향—現象學, 民俗方法論, 批判理論, 日常言語 分析學派, 解釋學, 象徵的 交涉論—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재론은 범과학철학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재론의 도입은 거의 전무하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오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16]

1) 實證主義의 限界와 Bhaskar의 實在論

실증주의의 한계를 포괄한 과학철학상의 쟁점들은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存在論과 認識論의 關係, 科學的 說明의 原理, 科學的 眞理의 規準 등이다. 이러한 세가지 관점하에서 Bhaskar의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실재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존재론이란 인식대상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과학활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인식론이란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인식론적 탐구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지식이 따라야할 표준에 대해 고찰한다. 즉, 지식이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또 확실성이 개연성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인식론자의 연구과제인 것이다.[17] 이러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과학철학상에서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18]

① 傳統的 經驗主義(classical empiricism) : 지식의 궁극적 대상은 원자론적 사건(atomistic events)이다.

② 先驗的 觀念論(transcendental idealism) : 과학적 지식의 대상은 자연법칙의 모델, 이상형

11) R. Harré, *The Philosophies of Science; an Introductory Survey*,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민찬홍, 이병욱(譯), 「과학철학」, 서광사, 1985.
12) R. Keat and J.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 Routledge & Kegan Paul. 1975.
13. R. Bhaskar, 1975,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eeds Books.
14) Sayer, *op. cit.*
15) Keat and Urry, *op. cit.*, p. 228.
16) 차인석, "사회과학의 과학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의 철학」, 민음사, 1980, pp. 22-3.
송동건,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수용," 김동일외,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청람, 1983, pp. 32-5.
정경희, 「사회과학에서의 방법론적 실재론(methodological realism)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p. 1-24.
17) Harré, *op. cit.*, p. 16.
18) Bhaskar, *op. cit.*, p. 24; Outhwaite, *op. cit.*, p. 32에서 재인용.

인데 자연 세계는 인간 심성의 구축물이다.

③ 先驗的 實在論(transcendental realism) : 과학적 대상은 현상을 일으키는 구조와 메카니즘이며, 그것에 대한 지식은 과학적 사회활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과학적 대상은 현상(경험주의)도, 현상에 부여된 인간의 구축물(관념론)도 아니며 우리의 지식, 경험, 과학적 활동 조건등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 구조이다.

전통적 경험주의를 받아들이는 실증주의는 명백히 과학의 시작을 관찰에 두고 있다. 관찰은 관찰자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아무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그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을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언명(즉, 觀察言明)은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법칙과 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의 구실을 한다.[19] 이러한 관찰언명은 특정의 장소에서 발생한 특정한 사건이나 사태를 언급한다. 이러한 각각의 관찰언명은 귀납적 추리, 즉 제한된 관찰언명의 리스트를 근거로 하여 보편 언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추리[20]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실증주의에 있어 존재론과 인식론은 동일한 것으로 혹은 존재론이 인식론에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理論的 用語', 혹은 '槪念'의 존재론적 취급의 거부 경향에서 뚜렷하다. 예컨데 '자기장'이란 이론적 용어는 그것이 현상들을 연결시켜주는 한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질 뿐 그것이 실재적으로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세가지 관점에서, Bhaskar는 앞의 두가지를 '認識論的 誤謬(epistemic fallacy)'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21] 인식론적 오류란 존재론을 인식론과 결부시키는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를 의미한다. '존재에 관한 문제'를 '존재에 대한 지식의 문제'로 돌리려는, 즉, 존재론을 인식론으로 환원하려는 경향에 반대하면서 Bhaskar는 存在論的 客觀主義(ontological objectivism)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실재론을 先驗的 實在論(transcendental realism)이라 명명했다.[22] 또한 과학활동과 무관하게 항상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궁극적 객관주의를 과학의 '自動的 次元(intransitive demension)', 혹은 '자동적 대상'이라고 명명하고 있다.[23]

따라서 실재론자에게 있어서 존재의 지적은 단순히 관찰에 의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보이는 존재, 즉, 현상은 과학적 대상의 일부분일 뿐 전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것을 주장하는 실증주의는 이미 그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난다. Bhaskar는 현상은 과학적 설명의 필요조건도 아니며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인과법칙과 경험적 토대사이에는 '存在論的 間隙(ontological gap)'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다.[24] 다시 말해서 세상은 層化(stratified)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층위는 세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① the real : 실체(entity)와 매카니즘으로 구성

② the actual : 사건(event)으로 구성

③ the empirial : 경험으로 구성

①에서 ②, ②에서 ③으로 가면서 우연적(contingent)이며 상위층위에 대해 하위층위는 부분집합으로 간주된다. 즉, 사건은 경험되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과 메카니즘은 사건의 발생이나 경험에 포착됨이 없이 발생할 수 있다.[25] 이러한 의미에서 실증주의는 '二重的 選

19) A.F. Chalmers, *What is This Thing Called Science?; an Assessment of the Nature and Status of Science and its Method*, Univ. of Queensland Press, 1982; 신일철, 신중섭(譯), 「현대의 과학철학」, 서광사, 1985, p. 29.

20) *Ibid.*, p. 32.

21) R. Bhaskar, *Reclaiming Reality: a Critical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Philosophy*, VERSO, 1989, p. 13.

22) *Ibid.*, p. 2.

23) *Ibid.*, p. 18.

24) *Ibid.*, p. 68.

25) Outhwaite, *op. cit.*, p. 22.

元(double reduction)'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지적된다. 즉, 실체와 메카니즘을 사건으로, 사건을 경험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론의 층적 구조하에서 Bhaskar는 3단계의 설명모델을 제시한다.[26]

① 현상의 확인과 기술

② 가설적 메카니즘의 설정

③ 메카니즘의 존재와 작동을 논증하려는 시도

Bhaskar는 이러한 3단계 과정은 계속적인 변증법적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보다 더 깊은 층위 혹은 실체의 층(strata of reality)이 순차적으로 밝혀질 것이며, 따라서 과학적 활동이란 명백한 현상의 지식으로부터 그것을 발생시키는 구조의 지식으로의 존재론적 이동에 그 핵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동을 '存在論的 깊이의 回復(recovery of ontological depth)'이라고 한다.[27]

다음으로 실재론이 주장하는 과학적 설명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실증주의는 명백히 귀납의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했다. 이 귀납의 원리는 가설-연역적 방법(hypothetico-deductive method)에서는 가설검증의 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관찰에 근거한 일반화를 통해 법칙과 이론이 성립되면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하에서 연역을 통해 경험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에 성공하게 된다. 따라서 실증주의에서 설명과 예측은 논리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예컨데 수많은 도시의 내부구조에 대한 관찰을 통해 '모든 도시는 기능지역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일반언명, 즉, 이론을 확정하게 되면, 어떤 도시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모든 도시는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있고(일반법칙)', '이것은 도시 이므로(초기 조건)', '이 도시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도시의, 혹은 아직 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촌락의 차후의 기능분화에 대한 예측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명의 원리에는 관찰이 이론으로부터 그 순수성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관찰과 이론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관찰이 이론에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실증주의의 소박한 객관주의(naive objectivism)에서 부터 (theory-neutral observation), 관찰이 이론결정적임(theory-determined observation)을 주장하는 급진적 상대주의(radical relativis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관찰언명과 이론의 절대적 분리에 근거를 둔 실증주의의 논리는 여러가지 점에서 비판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관찰은 관찰자의 주관적인 인상, 곧 관찰자가 한 대상을 볼 때 가지게 되는 시각경험은 과거에 그가 겪은 경험, 그의 지식, 그의 기대에 의해 왜곡된다는 것이다.[28] 그러나 결정적으로 실증주의의 관찰과 이론에 대한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정도까지 관찰이 이론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도시내부의 토지이용을 관찰한다는 것, 혹은 'filtering'이란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시에 대한 미시경제학, 혹은 도시생태학적 설명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는 관찰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히 순수한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찰과 이론은 상호의존적이며 관찰은 理論含蓄的(theory-laden)[29]이다.

관찰의 이론중립성을 바탕으로 현상을 체계적으로 결합하는 실증주의의 논리에서 보면 과학적 이론이란 規則體系(ordering-framework), 혹은 整列體系(filing-system)[30]를 의미하게 된다.

---

26) *Ibid.*, p. 33에서 재인용.

27) Bhaskar, *op. cit.*, p. 20; 이러한 존재론적 깊이의 회복은 특별한 탐구전략을 필요로하게 되는데, 그것을 Gregory는 '과학적 탐구의 network model,' '解釋學的 循環(hermenutic circle),' '前進的, 反省的 探究過程(a process of progressive and reflecsive investigation)'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D. Gregory, "Realism," in R.J. Johnston, D. Gregory and D.M. Smith,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1986, p. 388.

28) Chalmers, *op. cit.*, pp. 57-9.

29) Sayer, *op. cit.*, p. 78.

30) Milton Friedman의 용어. *Ibid.*, p. 49에서 재인용.

따라서 실증주의자에게 있어서 진리는 논리적 필연의 문제가 아니라 現象의 規則性과 連鎖的 發生(succession)으로 이해되며[31] 현상의 관련성은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예컨대, 범죄율의 증가와 낙석사고 증가간에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물론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상관을 검색하지는 않겠지만 그 상관이 주목되어서는 않되는 논리적 근거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현상이 다른 현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단지 두 종류의 현상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거나 그 두번째 현상이 결코 첫번째 현상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 현상을 관련시켜주고 첫번째 현상이 두번째 현상을 일으키도록 해주는 메카니즘에 관한 우리의 지식 또는 고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32] 따라서 실재론은 현상간 규칙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구조와 메카니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현상들 사이의 필연적인 관련성을 발견해야만 과학적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33]

마지막으로 과학적 진리의 규준에 대한 실재론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과학철학이든지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과학과 철학과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시 되는데, 실재론은 명백히 과학에 대한 철학의 하층노동자적(under-labourer) 견해를 취한다. 즉, 철학은 과학이 가는 길에 놓인 돌을 치워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과학적 활동의 진리유무를 판별해 줄 수 있는 어떤 규준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실증주의가 과학의 방법론적 통일성(methodological unity of the science)을 주장하면서 유일한 '과학적' 방법으로 실증주의를 제시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실재론은 기본적으로 과학자가 특정한 시·공간적 위치에서 벗어나 완전히 객관적일 수 있는 선험적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Bhaskar는 이러한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과학의 '他動的 次元(transitive dimension)'이라고 부른다.[34] Bhaska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35]

>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원칙은, 모든 신념은 사회적으로 생산되며 따라서 모든 지식은 순간적인(transient) 것이며 진리나 합리성의 규준은 역사성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Bhaskar는 이것이 판단적 상대주의(judgement relativism), 즉, 더 좋은 신념의 판별 기준이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재론은 인식론적 절대주의(epistemic absolutism)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비합리주의(ephistemic irrationalism) 모두를 비판한다.

과학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식 재료(cognitive material)의 수용에 의거하여 과학적 탐구를 한다. 따라서 과학은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며 자동적 대상을 타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체에 대한 인간의 記述과 그 실체사이의 구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리의 상대성은 합리주의(rationalism)와의 논쟁에서 보다 선명해진다.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는 경쟁하는 이론들의 상대적 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귀납주의자들은 이론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도를 보편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반증주의자들은 아직 반증되지 않은, 이론의 반증가능성의 정도를 이 기준으로 간주한다. 귀납주의적 합리주의자들은 점성술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배제한다. 왜냐하면 점성술은 관찰된 사실로부터 귀납적으로 유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반증주의자

31) Keat and Urry, *op. cit.*, p. 4.
32) Harré, *op. cit.*, p. 61.
33) Keat and Urry, *op. cit.*, p. 5.
34) Bhaskar, *op. cit.*, p. 18.
35) *Ibid.*, pp. 23-4.

들은 마르크스주의는 반증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36]

합리주의와 실재론은 공통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그것들은 이론적 개념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러한 **槪念化**(conceptualization)는 자동적 대상이 사전적 정의가 아닌 **實質的 定意**(real definition)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합리주의는 그 실질적 정의의 규준 역시 자동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데 실재론과의 차이를 드러낸다. 즉, 합리주의는 자동적 인식론 혹은 선험적 인식론을 주장하는 것이다.[37]

그러나 실재론의 견해는 다르다. 우리가 과학에서 사건이나 물체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특별한 기술(description)하에서 말하고 알게 된다. 그런데 그 기술이란 다소간 이론결정적이며 주어진 세계의 중립적 반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이어아벤트의 아나키즘적 인식론이나 쿤의 과학의 사회적 측면(넓은 의미에서 conventionalism)으로의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haskar가 제공하는 좋은 이론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의 포괄성이다. 즉, 존재론의 보다 깊은 층위에 대한 이론화의 정도에 의거한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탈역사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객관주의와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실재론에서, 과학적 설명은 인과적 메카니즘의 가정과 그것의 존재를 논증하려는 시도로 개념정의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존재론적 세 층위에서 각각의 하층위는 상층위의 부분집합이다. 우선 메카니즘의 가정은 명백히 추상(abstraction)을 요구하고 그 추상은 과학자의 훈련된 상상력에 의존한다. 추상은 바로 자동적 대상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 정의(real definition)를 포함하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바탕으로 한다.

결국 실재론이 주장하는 과학적 설명의 전형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론적 층위의 희복과 추상과 구체,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탐구의 일련의 순환과정을 통해 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며 표출된 현상을 그 메카니즘의 기술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Outhwaite의 말대로 실재론은 다음의 공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존재론적으로 대담하게, 그러나 인식론적으로는 조심스럽게.'[38]

위의 세가지에 덧붙여 자연과학적 실재론과 사회과학의 실재론간의 차이에 대한 Bhaskar의 논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간의 방법론적 통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논쟁에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재론 개괄의 서두에서 Bhaskar의 실재론은 '자연주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범과학철학임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Bhaskar는 주제(subject)의 차이에 근거하는 방법론 상의 중요한 차이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다.[39]

첫째, 존재론적 차이이다. '사회구조'는 자연구조와 달리 인간에 의한 실행과 개념에 의존적이며, 그것은 시·공간적 특이성 혹은 구체적인 **地史性**(geo-historisity)에 의존한다.

둘째, 인식론적 차이이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방체계에서만 발생한다. 폐쇄된 실험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론은 설명적일 뿐 예측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조와 메카니즘의 설명은 자연과학에 비해 신중해야만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완전히 폐기될 이론도 없고 완전히 확증될 이론도 없다.

세째, 사회과학적 지식의 대상인 사회구조는, 비록 자동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그것에 대한 지식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Bhaskar가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차이점이 지리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는 뒤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Bhaskar에 의해 인정된 '사회과학적 실재론'의 구체화로서 Sayer의 논의를 개괄하고자 한다.

36) Chalmers, *op. cit.*, pp. 169-70.
37) Outhwaite, *op. cit.*, p. 38.
38) *Ibid.*, p. 34.
39) Bhaskar, *op. cit.*, pp. 185-6.

2) Sayer의 實在論과 探究形式

앞 장에서 정리된 범과학철학으로서의 실재론을 사회과학적 실재론으로 구체화한 것은 명백히 Sayer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에서 정리된 Bhaskar의 실재론이 존재론적 객관주의와 인식론적 상대주의에의 선언이었다고 하면, Sayer의 실재론은 다분히 방법론적인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것이 실증주의의 폐기와 층화된 것으로서의 세계상(구조가 내재된) 및 존재론적 깊이의 회복으로서의 과학활동에 대한 선언이었다면, 후자는 구조와 현상간을 연결하는 방법론의 정교화이다. Sayer는 '社會科學에서의 方法論(Method in social science)'을 저작하기 전까지 경제지리 및 도시지리의 각 분야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리학에서 실재론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계속 논의해 왔다.[40] 그러나 실재론이 지리학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그가 제시하는 탐구 형식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세가지 수준의 탐구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抽象的 分析(abstract research), 具體的 分析(concrete research), 一般化(generalization)이다.

추상화(abstraction), 그것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構造的 分析(structural analysis)은 聯關(relation)과 構造(structure)의 본질적 규명을 요구하는데[41] 이것은 필연적인 것으로부터 우연적인 것을 구분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實質的 聯關(substantial relation)과 형식적 연관(formal relation)의 구분은 중요하다. 전자의 것은 內的(internal), 必然的(necessary) 연관인 반면에 후자의 것은 外的(external), 偶然的(contingent) 연관이다.[42] 그러나 연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① 내적 연관, 對稱的 연관 : 상인과 구매자

② 내적 연관, 非對稱的 연관 : 자본과 은행체계

③ 내적 연관, 非調和的 연관 : 자본가와 노동자

④ 외적 연관

①의 경우 전자없는 후자는 없고 또 그 역도 성립하며 관련 방식이 조화적이다. 그러나 ②의 경우, 전자 없는 후자는 없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대칭적이다. ③의 경우, ①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전자에 의한 후자의 일면적 지배관계가 두드러 진다. 사회적 실체는 이러한 여러가지 종류의 연관의 복잡한 총체로서 인식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추상의 기초는 사회현상을 이러한 연관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특히 내적 연관(internal relation)과 외적 연관(external relation)의 구분은 중요하다. 내적으로 연관된 대상 혹은 실체의 세트가 구조(structure)라는 용어로 불리어 진다.[43] 예를들어 지주-소작 관계는 그 자체로 사적소유, 지대, 경제적 잉여의 생산 등의 존재를 가정한다. 이것들은 함께 하나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 구조안에는 특정 역할(roles)에 해당되는 특정 지위(positions)가 있다. 그런데 지위 그 자체와 지위의 점유자(occupants)를 구별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지위들간의 관계는 내적 연관이지만 각 지위의 점유자가 기구냐 개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하는 문제는 외적연관이다.[44] 그러나 실질적 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구조도 역사적으로 우연함을 인식해야 한

40) A. Sayer, "Mathematical Modelling in Regional Science and Political Economy: some Comments," *Antipode*, Vol.10, 1978, pp.79-86.
_____, "Understanding Urban Models versus Understanding Cities," *Environment & Planning A*, Vol.11, 1979, pp.853-862.
_____, "Philosophical Bases of the Critique of Urban Modelling: a Reply to Wilson," *Environment & Planning A*, Vol.11, 1979, pp.1055-1067.
_____, "Explanation in Economic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16, No.1, 1982, pp.68-88.

41) Sayer, *op. cit.*,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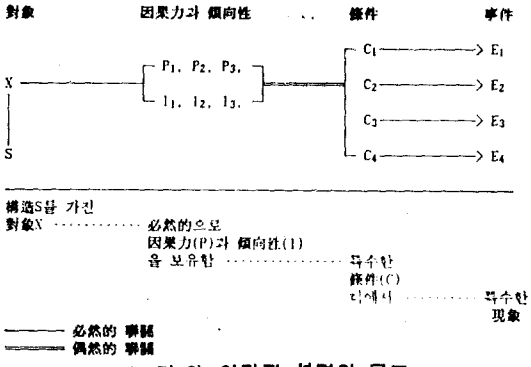
42) *Ibid.*, pp.82-3.

43) *Ibid.*, p.84.

44) *Ibid.*, pp.84-5.

다. 비록 구조의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는 우연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의 존재는 단지 그것을 구성하는 내적 연관을 언급함으로써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상화는 반드시 인과적 설명—구조와 그것의 발현을 연결짓는 것—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는데 Sayer는 그것을 구체적 분석(concrete research)이라고 한다.

실재론적 관점에서, 因果性(causality)은 개체적 사건들간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因果力(causal power)' 혹은 대상의 '傾向性(liability)'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메카니즘'을 의미한다. 메카니즘은 필연적으로 대상 자체의 본질적 성질에 의존한다. 그러나 대상의 필연적 작동방식으로서의 인과성의 개념은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동어반복적(tautological) 설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과력 혹은 경향성이 작동되느냐 억눌려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의 존재나 형상이 우연적인 속성을 가지는 '條件(conditions)'에 의존한다.[45] 〈그림 2〉는 인과적 설명의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인과력 혹은 메카니즘과 그들의 효과간의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다. 따라서 같은 메카니즘이 다른 결과(현상)를 산출하거나 다른 메카니즘이 같은 경험적 결과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놀랄 것이 못된다. 또한 두개 이상의 메카니즘이 동시에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이민 온 여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계급지위와 인종적, 성적 분리에 의해 重層的으로 결정(over-determined)된 것이다.[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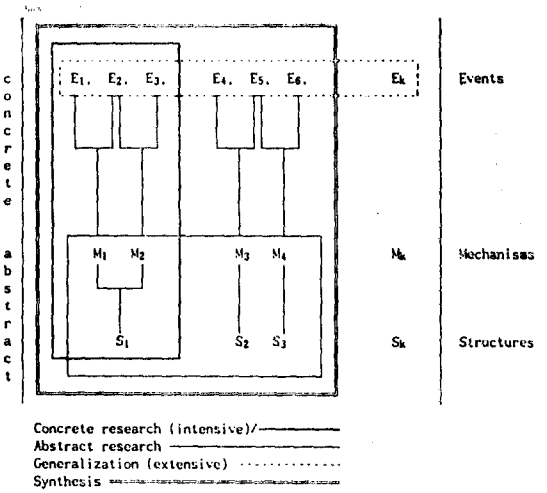
〈그림 2〉 인과적 설명의 구조

마지막으로 Sayer가 제시하는 것은 일반화이다. 일반화란 주어진 상황 혹은 배열의 단순한 기술적 요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적 대상의 양적 측정을 말한다.[47] 일반화는 그것의 脫歷史性, 脫文化性, 구조에 대한 無差別性, 개인의 집단으로의 환원, 추상화의 부재 등에 의해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화의 가치는 대상들이 나타내는 대상들의 질적 본질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실재론은 일반화를 통한 양적 측정을 보다 유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48]

Sayer는 추상적 분석, 구체적 분석, 일반화의 3층위로 이루어진 탐구형식을 제공한다. 추상적 분석은 사회적 대상의 구조와 그것의 작동방식을 다룬다. 구체적 분석은 실재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다양한 구조의 상호작용이나 발생 메카니즘과 발생조건간의 상호작용으로 연구한다. 일반화는 사건의 공통적 속성과 규칙성을 찾는다. Sayer는 이러한 세가지 분석 수준을 통괄하는 또하나의 분석수준으로 '統合的(synthetic) 次元'을 제시한다. Sayer는 이러한 종류의 탐구가 특히 역사학과 지리학에서 중요함을 주장한다.[49] 아래의 그림은 이 모든 탐구 절차가 포괄된 탐구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Sayer는 이러한 탐구과정 속에서 추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의 과도한 적용(over-extension) 혹은 類似具體探究(pseudo-concrete research)를 우려한다. 추상화는 우리가 구체적 분석을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을 제공하지만 구체적 분석과 그것의 경험적 탐구에의 의존을 대체할 수는 없다. Sayer는 이러한 구체의 추상으로의 환원을 맑시즘과 사회학의 공통적인 오

45) *Ibid.*, pp. 95-7.
46) *Ibid.*, p. 100.
47) *Ibid.*, p. 91.
48) *Ibid.*, p. 94.
49) *Ibid.*, pp. 215-6.



〈그림 3〉 探究形式(Sayer, A., 1984, p.215)

류라고 지적한다.[50]

3. 實在論의 地理學的 含意(implications)

Bhaskar와 Sayer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실재론은 몇가지 점에서 지리학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사회구조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에 지리학자들이 가담할 것을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증주의 지리학자의 사회구조에 대한 추상의 수준은 '정책적 변인'의 고려 정도이거나 상식적인 구조의 이해에 머무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조의 연구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의 몫으로 간주하는 학문대상의 구획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논자는 사회과학에 포함된 각 학문영역이 상이한 대상(object)을 가져야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학문의 구분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subject)에 있는 것이다.

둘째, 공간을 통한 추상이 아니라 공간을 떠난 추상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 모든 현상은 공간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공간적 현상이란 현상 그 자체이다. Sayer가 주장 하듯이 현상 그 자체는 구조에 의한 인과적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현상을 통한 추상은 구조적 과정이 현상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명백한 설명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현상이 공간적으로 표출되기 이전의 구조를 추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떠난 추상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세째, 실재론은 공간을 떠난 추상의 중요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현상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것은 구조가 현상으로 발현될 때는 그 속성 자체가 우연적인 조건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 분석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상이 구조로 환원될 수 없는 궁극적인 구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Sayer가 말한 유사구체연구의 오류를 적절히 지적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공간적 현상을 자본체적 구조의 직접적 발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구현에 가장 이상적인 공간구조를 상정하고 그 틀 속에서 공간적 현상을 설명하며 그것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부수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네째, 앞의 세가지의 총체적 함의로서, 실재론은 새로운 공간관의 구축과 그것을 통한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의 개념정의에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Ⅲ. 空間槪念과 空間의 相對的 自律性 (relative autonomy of space)

1. '空間' 槪念의 問題

최소한 계량혁명 이후,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을 공간과학, 즉, 공간을 다루는 학문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이후의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자들은 공간만을 다루는 학문은 존재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따라서 지리학에서의 철학적 논쟁은 '공간' 개념 자체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리학에서의 많은 논쟁이 그 해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공간' 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보이는 혼란에 기인한 바 큰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

50) *Ibid.*, p.217.

리학에서의 실재론의 논의는 '공간'개념과 관련된 논쟁을 정리하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 '空間' 概念의 變遷

지리학에서 수용된 공간은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絶對的 空間(absolute space) : 물체를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 사물의 존재에 대한 추상적 준거틀(abstract-frame-of-reference), 일반적으로는 유클리디안적 자연공간(natural space)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② 相對的 空間(relative space) : 가우스기하학에 영향을 받은 반유클리디안 거리 개념을 주장하는데, 예컨대 시간거리와 같은 것이다.

③ 關係的 空間(relational space) : 공간은 다른 대상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대상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공간에 포함된 대상이 사라지면 공간은 없어지며 공간은 그 대상들로 인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①과 ②는 대상에서 공간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입장이고 ③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세가지 공간관은 60년대 이전의 지역지리, 그 이후의 실증주의 지리학, 그리고 최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이르면서 각각의 접근법과 접목되어 온 증거들이 찾아지기도 한다. 지역지리는 국지화된 절대적, 자연적 공간이 표출하는 특이성의 파악에 몰두했다. 이에 반해 실증주의 지리학은 '거리'가 가지는 절대적인 의미에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수많은 '수학적' 공간을 재생산했고,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다분히 공간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공간관과 지리사상사적 측면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Harvey가 지적하듯이 공간의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실행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51] 촛점은 1960년대 이후 지리학이 보다 추상화된 의미로서의 공간을 지리학의 존재론으로 명확히 한 결과에 대한 것이며, 더 나아가 실증주의적 '공간'이 인과력을 가지는 존재론적 층위를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場所', '地域' 등과 같은 개념은 1960년대 이전의 지역지리에서 많이 사용되던 단어이다. 이것은 실증주의에서 그 위상을 강화시킨 그 '공간'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른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이러한 지역지리의 전통은 그 개념들과 함께 거의 와해되었다. 영·미지리학에서,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지리학도 '실증주의적 혁명'의 열기에 휩싸였다. 이것은 지리학에 엄중한 물음을 던졌다. '진실로 과학적인 수단은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지리학의 학문 대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지리학은 '공간과학'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공간법칙(spatial laws), 공간관계(spatial relationship), 공간과정(spatial process)이 있고 사회적 관계와 분리되어 논해질 수 있는 공간관계의 어떤 원칙이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졌다. 공간적 규칙성의 확인과 그것을 공간적 인자로 설명하는 시도들이 정형화되었다. 도시내부의 연구는 그것이 명확한 공간적 규칙성을 보임으로서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Massey가 지적하듯이, 지리학자와 지리학은 실체 혹은 내용물과 분리될 수 있는 순수한 공간적 법칙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게되는 것이다.[52]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리학은 스스로 학문적 대상을 상실하고 스스로 '次元'만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공간개념을 완전히 '형태론'적 개념으로 전환하게 했으며 사회과학내에서 그 입지를 약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소위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지리학에의 도입은 보다 강력하면서도 복잡한 양상으로 지리학의 학문적 위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순수한 공간적 과정은 없으며 단지 공간상(over space)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특수한 사회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공간의 그

51) D. 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3, p. 13.

52) D. Massey, "New Directions in Space," in D. Gregory and J. Urry, 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London; Macmillan, 1985, p. 10.

'차원'마저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실증주의와 정치경제학의 발달은 양자 모두 공간(실증주의적 공간이 아님)에 대한 평가절하의 과정에 공헌해 왔으며 자의든 타의든, 혹은 그것이 지리학 발전에 도움이되든 그렇지 않든 학문사회내에서 지리학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약화시켜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 대한 평가절하의 과정은 보다 광범위한 지식사적 측면에서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보다 명확히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Agnew는 이 과정이 19세기 주류사회학의 발달과정과 정치경제학의 발달과정 모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면서 그 이유를 정리하였다.[53] 우선 주류사회학에서의 공간의 평가절하 이유는 다음의 네가지이다.

① community에서 society로의 학문적 관심의 전이

② 進化論적 사고의 충만

③ 民族主義(nationalism)의 성장

④ 세계에 대한 3분법적 시각

①은 community에서 society로의 진화과정으로 사회적 변화를 표현하려했던 이론의 성장을 통하여, ②는 진화론적 사고를 가능케 한 자연과학 자체가 가지는 예의 혹은 개성(idiosyncracy)의 배제 경향을 통하여 공간의 평가절하에 기여했다. 또한 민족주의의 성장이, 단위지역사회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로서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구축함으로써, 그리고 냉전체제하의 제 3세계의 성장을 또 하나의 세계로 규정하여 전세계를 세개의 지역으로 환원하려는 인식의 평준화를 통하여 공간에 대한 평가의 절하는 가속화되었다. 정치경제학의 발달에 있어서 공간의 평가절하는 주류사회학에서 보여지는 진화론과 자연주의적 과학관의 영향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 그 과정에 가담해왔다. 자본축적의 강제력(imperative of capital accumulation)은 資本主義의 一般化(universalization)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 그것의 전세계적 차원으로의 지향은 자본주의를 통한 세계사회(world society)에 그 귀결점을 찾게 된다. 명백히 한 국가, 혹은 한 국가 내의 지역사회의 의미는 그것을 관통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소멸된다.

여기에 노동의 상품화와 계급구조를 통한 인간의 특징화는 장소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정치경제학에서의 장소의 평가절하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개인적 원자론과 인간과 장소의 상품화를 허락하는 분석틀의 하나의 산물이다.

2) 空間에 대한 實在論的 解析

논자는 앞에서 실증주의적 공간이 인과력을 내재한 자동적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명백히 그 공간은 추상적인 하나의 차원이며 구체적인 연구에서 그것은 '공간구조'로 대변되는 형태적 개념이다. Kant에 의해 역사학과 함께 격상된 지리학은 역사학에 비해 그 학문적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만일 역사학이 '시간의 흐름' 혹은 '시간의 간격'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건의 인과력인 것으로 간주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컨대 어떤 유형의 사건은 몇 년 주기로 나타난다라던가 하는 식으로 역사를 설명하면서 '시간적 구조(time structure)'라는 것을 구축하려 했다면 그 결과는 자명했을 것이다.

본 논자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와 공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물론 여기서 공간이란 형태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장소, 지역, locality, community 등의 개념이 내포하는 것을 포괄한다. 사회와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공간이 사회에 대해 자율적인 공간논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간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보다 실증주의적이며 후자는 보다 정치경제학적인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동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것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 그러하다.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명백히 공간의 절대적 자율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관계적 공간 개념을 상정한다. 그러나 그 내에서도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견

53) J.A. Agnew, "The Devaluating of Place in Social Science," in J.A. Agnew and J.S. Duncan, *The Power of Place*, Unwin Hyman, 1989, pp. 10-25.

이 존재한다.

첫째, 공간은 하나의 自律的인 힘(force)을 가진 실체라는 것이다. Gottdie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54]

> ...공간이 자본주의적 과정에서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생산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관심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자본론 안에 있는데, 그것은 맑스가 상품의 시장으로의 이동을 가치증식과정(valorization process)의 부분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공간은, 그것이 사회적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정에 인과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둘째는 소위 *辨證法的 關係論*이다. 이 관점은 Soja[55]와 Peet[56]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사회적 관계와 공간형태를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두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간구조를 단순히 사회적 과정의 부수현상으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고 공간구조를 자본과정의 필연적 산물이자 다음의 자본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공간적 표현은 계속적인 사회과정으로서의 투입을 형성하여 사회과정 전개의 형태와 속도를 변형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가지가 보다 공간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학하에서 지리학의 생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리학의 소멸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형태인데, 주로 Smith[57]와 Hurst[58]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은 '변증법적 관계론'을 사회와 공간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들의 '변증법적 관계'라는 것은 단지 '相互作用(interaction)' 개념의 진부한 재긍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59] 따라서 조야한 '공간적 상호작용'개념이 공간변증법의 가면을 쓴 것으로 결국 空間物神主義(spatial fetishism)의 때를 벗지 못한 것으로 지적한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관계론은 '急進的 折衷主義(radical ecleticism)'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부르조아 사회과학의 한 분파로서의 지리학은 맑시즘과 결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맑시즘에 의해 초월되고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Hurst에 있어 실증주의의 '공간', '공간적 차이', '공간적 상호작용'등의 개념과 맑시스트 지리학의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개념 모두 물신주의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된다.[60]

논의가 이쯤되면 사회와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은 그 정도를 더하게 된다. 본 논자는 이런 공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복잡성은 실재론적 관점에 의해 재구조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와 공간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층위에 있는 존재이다. 즉, 사회와 공간은 다른 속성을 지니는 대상이다. 따라서 '공간'을 사회와 같은 인과력을 지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주장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모든 공간적 현상이 거대사회이론에 의해 모두 설명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맑시스트 지리학자에 의해 간과된 것은 공간이 사회관계에 의해 구축되지만 공간이 막바로 사회관계로 환원되지는 않

54) M. Gottdiener, "Space as a Force of Production: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Realism, Capitalism and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1, 1987, pp.409-410.
55) E.W. Soja, "The Socio-Spatial Dialectics," *Annals of A.A.G.*, Vol.70, No.2, 1980, pp.207-225.
56) R. Peet, "Spatial Dialectics and Marxist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5, 1981, pp.105-110.
57) N. Smith, "Degeneracy in Theory and Practice; Spatial Interactionism and Radical Ecletic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5, 1981, pp.111-112.
58) M.E. Hurst, "Geography has neither 'Existence nor Future'," in R.J. Johnston, *The Future of Geography*, Methuen, 1985, pp.59-91.
59) Smith, *op. cit.*, pp.111-3.
60) Hurst, *op. cit.*, p.85.

는다는 사실이다.[61] 따라서 추상적 거대이론으로의 환원이 공간현상을 전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모든 종류의 주장 역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사회적 과정은 '핀의 머리(head of a pin)' 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공간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자율적이지 않다면, 사회적인 것은 공간적인 형태, 그 함의로부터 자율적으로 이론화될 수 있는가?[62] 따라서 공간이 비자율적이라는 것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동일시 될 수 있는 논구가 아니다.

둘째, 공간은 '공간형태'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국지적으로 함께 있음'이 의미하는 사회적 함의가 내재된 공간이다. 이것은 인간의 실재적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이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화과정이 일어나는 조건이다. 단순히 공간이 건조환경(built-up environment)의 배열이나 그것에 의해 통제된 공간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논의는 이미 그 시작에서 부터 오류를 포함한 것이다. 국지적 시민사회(local civil society)의 형성단위로서의 공간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세째, 인간은 가정될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져야 한다. 사회구조의 존재 조건은 행위주체에 의해 계속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간형태의 생성과 변형, 함께 있음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모든 과정의 주체는 인간인 것이다. 실증주의 지리학이나 정치경제학적 접근 모두 인간의 행위는 가정되거나 관찰 가능한 것에 국한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우리의 논의구조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Bhaskar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한 논리적 틀을 제공한다. 그는 自發主義(voluntarism)[63], 物化論(reificationism)[64], 그리고 辨證法的 關係論[65] 모두를 비판하면서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특히 변증법적 관계론에 대하여 그 두가지는 동일과정에 있는 두 축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존재론적으로 그 속성을 달리 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66]

> ...사회가 인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물화론은 오류이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은 만일 인간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인간이 사회를 재생산하고 변형한다고 말해야 한다. 즉, 사회가 이미 만들어졌다면 구체적 인간의 실행은 그것을 단지 변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Bhaskar는 스스로 '社會的 活動에 대한 變形 모델(transformational model of social activity)'이라고 부른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67]

> ...인간은 사회를 창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항상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는 인간이 재생산하고 변형하는 구조(structures), 실행(practice), 그리고 관습(conventions)의 총합(ensembles)이다. 그러나(사회는) 만일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을 어떤 것이다. 사회는 의식적 인간활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물화론의 오류) 그러나 그것은 후자의 산물이 아니다.(자발주의의 오류)

61) A. Sayer, "The Difference that Space Makes," in Gregory and Urry, *op. cit.*, 1985(a), p.51.
62) Massey, *op. cit.*, p.18.
63) 주로 Weber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 사회적 대상은 의도적이고 의미있는 인간행위의 결과로서 파악된다. 이것을 소위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고 한다.
64) Durkheim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 사회는 인간 외부에 있으며 인간에 제약을 가하는 독자적(*sui generis*) 실체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라고 한다.
65)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변증법적 과정하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인간의 외부화(externalization)이며, 인간은 사회의 의식적 전유(conscious appropriation)로 파악된다.
66) Bhaskar, *op. cit.*, p.76.
67) *Ibid.*, p.76.

따라서 Bhaskar에 있어서 사회는 인간활동의 조건(conditions)이며, 인간은 사회를 재생산 혹은 변형하는 실체로 파악된다. 그는 더 나아가 사회적 구조는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개인 상호간의 개념적 구축에 의존하고, 사회적 생활의 공간적 특성은 사회적 생활에 보다 지리, 역사적인 특수한 성격을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이론은 역사와 지리이기도 하다.[68] 이러한 그의 주장은 사회구조와 사회체계를 구분하면서, 사회체계의 구조적 속성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조직화하는 인간 실행(practice)의 媒介(medium)이자 産物(outcome)로 파악하는 Giddens의 주장과 상통한다.[69] 또한 Giddens는 공간은 사회그룹이 그 안에서 구조화되는 빈 차원(empty dimension)이 아니며, 상호작용 체계의 구축에 내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문지리학과 사회학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갈파하고 있다.[70]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공간은 현상 그 자체가 아니며, 그 위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체계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은 또 다른 존재론적 층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구조, 인간, 공간은 서로 서로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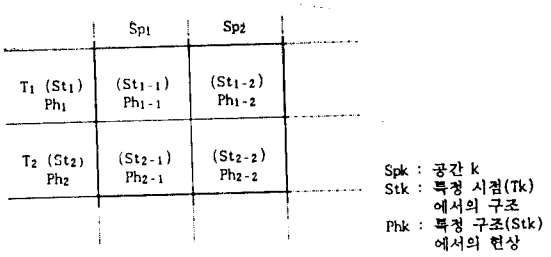
2. 空間의 相對的 自律性(relative autonomy of space)

공간이 사회적 관계에 어떤 인과력을 가하는 절대적으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님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또한 모든 공간적 현상이 사회구조로 환원될 수 없음도 주장되었다. 그렇다면 '상대적' 자율성이란 무엇인가? Sayer의 말을 빌자면, 그것은 공간이 만드는 差異(difference that space makes)이다. 공간이 만드는 차이란 공간이 그것을 구축하는 사회구조에 환원될 수 없는 궁극적인 '具體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먼저, Sayer는 앞에서 추상화와 구체적 분석을 구분한 바 있다. 추상화는 내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을 다루는 것이며 구체적 분석은 외적이고 우연적인 연관을 포괄하는 것이다. 구체적 현상은 추상적 이론에 내포된 공간구조에 대한 이상형에 의해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궁극적인 구체성을 띠게 된다. 내적 연관에 의한 인과력이 구체성을 띠면서 우연화되는 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과메카니즘은 그 자체로 변할 수 있으며, 그 메카니즘에 작용하는 조건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며 조건의 견인력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리학이 자연과학과 같은 폐쇄체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開放體系를 다루기 때문이다.[71] 이때 인과력에 하나의 filter를 제공하는 조건은 전적으로 우연한 현상들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인과력일 수도 있다. 즉, 작동되는 인과력은 둘이상일 수 있으며 이때 각 인과력은 서로의 발현을 도울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발생한 경험적 사건은 상이한 구조의 고도로 복잡한 상호의존 과정의 산물이다. 더나아가 이러한 상이한 구조에 의한 상이한 과정들은 단순히 목록화되거나 합산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synhetsis)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합은 질적으로 각각의 구조적 과정을 변형시킨다.[72] 현상의 우연화 과정의 두번째 이유는, 사회구조는 시간적 변이 뿐만 아니라 공간적 변이도 포함하는 時空間的 實體(time-space entity)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변동이 단지 사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역사의 단면에서 공간적으로도 발현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은 이것을 개념적으로 도해한 것이다.

시간 T_1에서의 구조는 St_1이다. 그리고 이 구조의 이상적인 구현은 현상 Ph_1이다. 이것은 공간 Sp_1과 Sp_2에서 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차

68) *Ibid.*, p. 185.
69) A.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Polity Press, 1984, p. 25.
70) *Ibid.*, p. 368.
71) A. Sayer, "Realism and Geography," in Johnston, ed., *op. cit.*, 1985(b), p. 164.
72) J. Urry, "Social Relations, Space and Time," in Gregory and Urry *op. cit.*, pp. 25-6.



〈그림 4〉 時空間的 實體로서의 社會 모형

별적 조건에 의해 St_{1-1}과 St_{1-2}의 차별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현상 Ph_{1-1}, Ph_{1-2}로 구현된다. 시간 T_2에서 구조는 St_2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각 공간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이때 St_2는 Ph_1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가 內在化된 형태이다. 즉, 차후의 구조는 그 이전의 구조에 의해 구현된 현상에 의해 媒介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시간 T_2에서 공간 Sp_1에서 작동되는 구조 St_{2-1}는 Ph_{1-1}을 매개로 하여 구축된 것이며, 따라서 현상 Ph_{2-1}은 Ph_{1-1}에 의해 매개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특정 지역의 공간 현상은 그 시점의 구조적 작동이 그 지역의 이전의 공간현상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시점의 구조는 둘 이상일 수 있다. 그것이 위 표의 단면에 겹쳐진다면 그 복잡성은 어떠하겠는가?

공간이 구체성을 획득하면서 차이를 만드는 두번째의 원인은 'local'로 대변되는 지역사회가 가지는 그 특이성에 있다. 이것은 앞의 표에서 구조가 공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많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과정이 공간 위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 가지는 중요성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시간의 차원을 보다 궁극적인 이론의 원천으로 간주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Berger는 인상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73]

...하나의 점을 한 직선위의 무한히 많은 부분들 중의 하나로 보는 대신에,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많은 선분들 위에 있는 무한히 많은 부분들 중의 하나로 보려고 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역사상의 변이 보다 각 역사적인 단면에서의 수평적인 변이를 보다 강조하는 논구로 볼 수 있다. 실지로 인간은 그들의 歷史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地理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74]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here and now)'을 '거기 그 때(there and then)'와 구별하고자 할 때, 다시말해서 공간적으로 국지화됨으로서 다분히 특이성을 보이는 영역을 지적하고자 할 때, 최근에 locality, local, locale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locality 개념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locality의 존재는 바로 공간이 만드는 차이의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locality는 국지적으로 작동하는 시, 공간적 communication체계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작게는 자연과 친족간의 상징적, 혹은 정의적 상호작용으로부터 크게는 국지적으로 특수한 계급구조, 정치문화를 형성한다. 이것은 사회생활의 필연적 時空間的 脈絡化(spatio-temporal contextuality)에 기인한다. 이러한 맥락화의 과정은 지역적으로 차별적이며 다분히 집단적 인간행위의 정형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locality의 강조는 구조의 '空間的 一般化'에 대해 어떤 인과적인 작용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locality가 나타내는 그 특성은 이미 시·공간을 넘어 전개되는 구조적 강제가 내재화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화의 효과는 차후에 발생하는 구조적 과정에 매개로 작용하며, locality에서의 사회구조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75] 따라서 모든 사회구조적 과정은 국지적으로 특이성이 획득된 장소들에 의해 차별적으로 매개되며, 이

73) *Ibid.*, p. 29에서 재인용.
74) *Ibid.*, p. 30.
75) S. Duncan, "What is Locality?,"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Vol. Ⅱ, Unwin Hyman, 1989, p. 247.

런 locality의 계속적인 매개의 과정은 공간현상의 '구체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은 공간의 바로 이러한 매개적 속성에 의거하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空間의 相對的 自律性이란, 構造와 그 發生條件間의 偶然的 結合, 構造의 變形的 屬性, 構造的 接合의 偶然性, 局地化 된 時空間的 脈絡化의 多樣性 등에 의해, 構造的 過程에 대해 空間이 누적적으로 具體性을 獲得해 가는 過程으로 정의된다.

논자는 실증주의의 비판, 실재론의 개괄,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리학의 주제는 '地域差(areal differentiation)'의 연구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지역지리에서의 주장과는 다른 것임은 앞에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보다 '세련된', 혹은 '과학적인' 지역차 연구는 Gregory에 의하면,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76] 첫째, 정치경제학과의 접합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Harvey의 '資本의 都市化'에 관한 연구와 Massey의 '공간적 분업'에 관한 논의이다. 둘째, 사회학과의 접합인데, 사회이론구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사회생활의 시·공간적 맥락화를 상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지리학과 구조화이론간의 교류에서 두드러진다. 세째는 인류학과 문화지리학의 접합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차'연구는 그것이 어떤 접근법과 관련을 맺던 구조적 강제의 필연성과 현상의 우연성 및 구체성을 모두 갈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상화를 통한 이론의 그 '명료성'의 추구나 메카니즘의 조작적 배제를 통한 현상의 체계적 정리 모두 과학의 일부분일 뿐 전체는 아니다.

따라서 지리학적 실재론은 '法則追求的(nomothetic)'이라기 보다는 '個性記述的(idiographic)'이다.[77] 또한 지리학의 목표는 case로서의 지역단위와 변인으로서의 내용물(contents)간의 행렬로 표현된 '지리적 정보'의 조작화를 통한 설명 및 예측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합(synthesis)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기술과 통합의 목표를 수립하는 데 locality 지향적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지역차 연구의 가능한 대안으로서 locality연구와 그것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Locality研究로의 指向

1) locality연구의 논리적 정당성

Gilbert에 의하면 신지역지리의 연구는 다음의 두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78]

첫째, 資本主義的 過程의 局地的 反應으로서의 地域. 이러한 견해는 지역을 생산양식과 결부된 사회적 과정의 공간적 조직으로서 언급한다. 사회적 空間分業의 地域化, 資本蓄積過程의 地域化를 중요시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 지역은 生產關係의 具體的 明瞭化(articulation)로 규정되며, 관심의 핵심은 자본순환의 과정이 어떻게 특정 장소에서 작동하는가에 주어진다.

둘째, 社會的 相互作用의 媒介로서의 地域. 이러한 견해는 지역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매개로서 언급하며, 이러한 매개는 사회적 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주된 관심은 경제, 문화, 상징을 포괄하는 사회생활의 전영역에 주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된 양 진영은 후자의 것이 實在論, 後期構造主義, 포스트모더니즘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됨으로서 간혹 이것들과 맑시즘간의 논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79] 이러한 논쟁은 Smith, Harvey, Cooke간의 격렬한

76) D. Gregory, "Areal Differentiation and Post-modern Human Geography," in D. Gregory and R. Walford, eds., *Horizons in Human Geography*, Macmillan, 1989, pp. 67-96.

77) Sayer, *op. cit.*, 1985(b), p. 172.

78) A. Gilbert,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12, No. 2, 1988, pp. 208-213; 그는 지역에서의 문화적 고착을 주장하는 Claval, Ley, Tuan, Buttimer 등의 진영을 또 하나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79) R.A. Beavregard, "In the Absence of Practice; the Locality Research," *Antipode*, Vol. 20, No. 1, 1988, pp. 231-239.

한 차례의 논쟁을 잉태하기도 했다. Smith는 locality의 경험적 연구를 격렬히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locality연구를 구지역지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렬하게 비난하고 있다.[80]

> 지난 30년간의 과도한 이론적 혼란은, 무익한 논쟁을 회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논쟁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50년대 이후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 될 것이다.

Harvey도 구체적 연구로의 지향을 비난하면서 그것은 추상의 한부분으로서의 '具體 抽象(concrete abstraction)'속에서 충분히 다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81] 이에 대해 Cooke는, 인간은 여러가지 구조들(자본주의, 가부장제, 시민성 등)과 상호작용하는 실체로 파악되기 때문에 결코 추상적일 수 없으며 원자론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한다. 그러므로 생활사적 방법(life history method)은 구체적 연구의 좋은 방법론이라고 주장한다.[82] 또한 많은 가치로운 설명이 맑시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맑시스트 지리학자에게서 나온 것임을 예시하면서 강력하게 Harvey와 Smith에게 대응하고 있다.[83] 이러한 Cooke의 주장은 Sayer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비판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yer는 세가지 점에서 맑시스트 지리학과 급진적 접근을 비판한다.[84]

첫째, 추상적 분석과 구체적 분석의 관련성에서 파생된 오류로서, 이러한 문제점은 구체적인 것의 추상적인 것으로의 환원과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사회적 형태를 가능한 유일한 결과로서 물상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공간을 사회적 과정과 일치시키려는 오류이다. 예컨대 어떤 종류의 경제활동은 대도시 지역과 일치하여 발생한다는 식의 설명을 하거나 핵심부 주변부의 개념을 어떤 사회적 과정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본과정이 그것과 우연적인 관계에 있는 시·공간적 형태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빈약한 논리적 근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주제가 어느정도 편중되어 있는 데서 오는 것으로, 그들에 의해 제외된 주제들이 개방체계에서 야기하는 영향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locality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구지역지리로의 회귀라기 보다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의해 잃어 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locality研究의 槪念틀

locality연구의 개념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locality개념 자체를 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locality는 앞에서 논의해 온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이 발현되는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locality는 물리적 공간 한계를 규정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과정을 차별적으로 매개하는 속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locality 개념의 규정은 전형적인 공간단위의 개념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논의에 Giddens의 구조화이론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構造와 行爲主體간의 오랜 논쟁을 극복하고자 했던 그는 社會統合(societal integration)이 시공간상에서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이론의 요체라고 보고, 이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社會的 統合(social integration), 體系 統合(system integration)의 두 축을 마련하고 이 두 축의 매개이자 접합의 공간적 표현으로서의 地域化(region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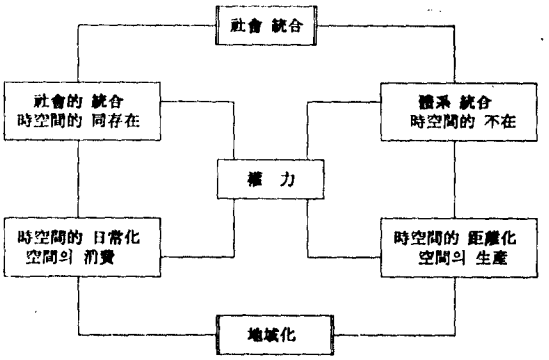
80) N. Smith, "Dangers of Empirical Tur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Vol.19, 1987, p.66.
81) D. Harvey, "Three Myths in Search of a Reality in Urban Studies,"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5, 1987, p.372.
82) P. N. Cooke, "Individuals, Localities and Postmodernism," *Environ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5, 1987(a), p.410.
83) P. N. Cooke, "Clinical Inference and Geographic Theory," *Antipode*, Vol.19, No.1, 1987(b), pp.72-3.
84) A. Sayer, "Industry and Space: a Sympathetic Critique of Radical Research," *Enviroment & Planning D: Society & Space*, Vol.3, 1985(c), pp.4-6.

zation) 개념을 도출했다. 각각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첫째, 사회적 통합. 同存在(co-presence)의 상황에 있는 인간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對面的 相互作用(face-to-face interaction)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體系性(systemness)을 의미한다.[85] 이것은 日常化된 相互作用(routinized interaction)의 지속성을 통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간지리학은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Giddens는 인정하고 있다.[86] Hägerstrand는 Giddens의 '동존재' 개념에 대응되는 '同空間化(synchorization)'와 '同時間化(synchroniz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87] 이러한 일상화된 행위 수행은 자연적, 인공적 무대에 대한 人格化(personalization)를 포함하게 되며 局地的 市民 社會(local civil society) 형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둘째, 체계 통합(system integration). 체계통합이란 시공간상에 동존재하지 않는 인간들간의 결합을 의미하는데,[88] 사회적 통합과 구조와의 관련성은 구조적 속성, 혹은 사회적 관계가 시공간을 관통하여 뻗어가는 정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것을 Giddens는 '時空間的 距離化(time-space distantiation)'라고 명명했다.[89] 이러한 방식으로 보면 부족사회에서 현대사회에 이르기 까지 이러한 거리화의 정도는 강화되어 왔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日常生活과 空間의 商品化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째, 지역화. 상호작용의 무대(setting)로서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Giddens는 local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러한 locale내 혹은 간에서의 시공간적 분화를 지역화라고 정의했다.[90] 그는 이러한 지역화의 개념이 사회는 항상 동질



〈그림 5〉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

적으로 통합된 체계를 형성한다는 가정을 벌층(counter-balancing)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91]

따라서 구조화이론은 위의 표와같이 정리될 수 있다.[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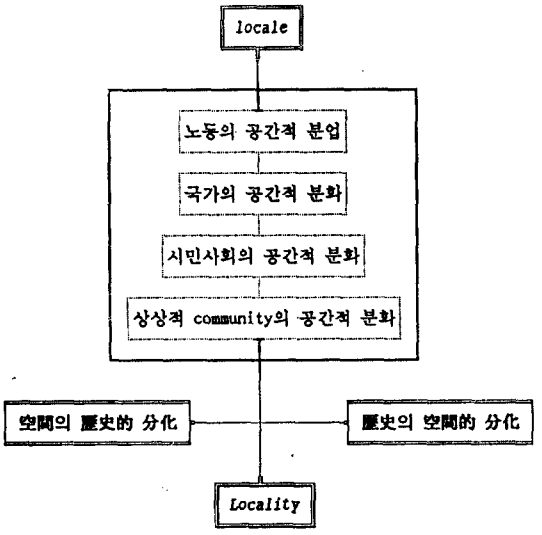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가장 높은 추상의 차원에서 locality개념은 시공간적 일상화와 시공간적 거리화가 통합된 locale로 간주된다. 이 때, 사회적 통합은 '空間의 人格化(personalization)'를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체계통합은 '空間의 商品化(commodification)'를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ocale은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서의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locality와는 다르다. locale이 locality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념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Urry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관계는 세가지 국면을 가진다. 그것은 각각 資本制的 生産(capitalist production), 國家(state), 市民社會(civil society)이다.[93] 이 세가지는 각각 독자적인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역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Duncan은 그것을 각각 '勞動

85) Giddens, *op. cit.*, p. 28.
86) *Ibid.*, pp. 110-6.
87) T. Hägerstrand, "The Impact of Social Orgnization and Environment upon the Time-use of Individuals and Housholds," *Plan International*, 1972, p. 21.
88) Giddens, *op. cit.*, p. 28.
89) *Ibid.*, p. 181.
90) *Ibid.*, p. 376.
91) *Ibid.*
92) Gregory, *op, cit.*, 1989, p. 81.
93) J. Urry, *The Anatomy of Capitalist Societies; the Economy, Civil Society and the State*, Macmillan, 1981; Duncan, *op. cit.*, p. 248에서 재인용.

의 空間的 分業(spatial division of labor)', '國家의 空間的 分化(spatial division of state)', '市民社會의 空間的 分化(spatial division of civil society)'로 명명하고 있다.[94] 그는 여기에 '想像的 community의 空間的 分化(spatial division of imagined community)'라는 또 한 국면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locality에 대해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믿음의 차원이다.[95]

이러한 모든 종류의 분화는 각 locality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지적으로 특수한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를 창출하며 이것은 특정 장소에서의 사회적 구조를 질적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공간적 분화는 특정한 시기의 역사성이 공간적으로 편절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歷史의 空間的 分化(spatial division of history)'를 의미하는 것이 되며, 사회적 통합, 즉, 특정 시기의 구조적 강제는 공간성을 소멸하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空間의 歷史的 分化(historical division of space)'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locality 연구의 개념틀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그림6〉 locality연구의 개념 틀

94) Duncan, *op. cit.*, p.249.
95) *Ibid.*, p.249.

Ⅳ. 結　論

본 연구는 우선 과학철학으로서의 실재론의 지리학에의 도입과 그것의 함의에 대해 Bhaskar와 Say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은 지리학 방법론으로서의 실증주의와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진행된 것이다. 공간 현상은 명백히 비공간적인 사회구조적 과정의 인과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간현상의 연구는 실질적 정의(real definition)를 포함한 개념화(conceptualization)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간을 떠난 추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아직 설명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추상은 명백히 비현상적인 것이고 비공간적인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공간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른 차원이다. 공간 현상은 구조로 환원될 수 없는 명백한 구체성을 보인다. 따라서 학문은 추상에서 구체,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계속적인 순환과정을 통해 그것들이 관련맺는 방식에 대한 설명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련방식의 설명은 사회, 인간, 공간간의 존재론적 층위의 명백한 구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공간관의 정립을 견인한다. 공간에 대한 실재론적 해석은 '공간의 媒介的 屬性'에 의거하며 그것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구조적 과정은, 그것이 작동할 때,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간의 형태와 내용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의 구조적 과정은 그 이전의 공간구조가 내재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구조적 과정은 단지 하나일 수 없으며, 구조간의 상호작용은 원칙적으로 우연적인 것이다. 구조간 접합의 이러한 우연성은 그것이 공간에 표출되었을 때, 추상화로 환원될 수 없는 구체성을 띠게 된다.

세째, 구조적 과정은 국지적으로 형성된 시민사회에 의해 매개되며 변형된다. 時空間的 脈絡

化(time-space contextualization)에 근거한 시민사회의 속성은 계급구조로 환원될 수 없는 집합적 형태의 상부구조를 창출하며 그것은 구조적 과정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그 국지적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정을 변형한다.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공간이 구조적 과정에 대한 추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구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개념규정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을 바탕으로 지리학의 주제(subject)로서 '地域差(areal differentiation) 研究'를 주장하였다. 이런 지역차 연구는 전통지역지리와 정치경제학적 접근에서 간과된 것을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locality 연구의 개념틀은, 우선적으로 가장 상위의 추상단계로서 전형적인 공간 단위로 locale개념을 상정했으며 locale이 특이성을 획득하여 locality가 되는 과정을 '歷史의 空間的 分化(spatial division of history)'와 '空間의 歷史的 分化(historical division of space)'의 접합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소위 '新地域地理(new regional geography)'로 불리워지는 이 locality연구는 실재론적 철학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實在論的 地域 研究'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새로운 병에 오래된 와인을 담는 것(old wine in a new bottle)'[96] 일수도 있고, '새로운 理論的 感受性(new theoretical sensitivity)으로 武裝하는 것'[97] 일 수도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지리학으로의 지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지리학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위에 있는 것이다.

96) Duncan, *op. cit.*, p. 237.
97) Gregory, *op. cit.*, p. 92.

Geographical Implications of Realism and Relative Autonomy of Space

Sang-il Lee*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geographical implications of realism as a new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to define the concept of 'relative autonomy of space', and then to establish a frame of locality study.

To achieve this purpose, Bhaskar and Sayer's realism are extensively reviewed and their possibility of geographical adaptation for anew research scheme is fully explored. Also the concept of space is reinterpreted from the realist view in order to elucidate the concept of relative autonomy of spac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pace has ontological property which is different from social structure. The latter is intransitive object with causal power, but the former is not. The spatial phenomenon stems from social structural processes whose properties are essentially aspatial. Hence the study on spatial phenomenon must be started from conceptualization about social structure, which relies on abstract research.

2) In spite of the significance of abstract research about social structure, space is not reducible to it. Because social processes are mediated by pre-existing spatial forms and contents when they operate. Also social processes are mediated and transformed by locally constituted civil societies. Local civil societies have a tendency to form a characteristic superstructure.

3) Concept of 'relative autonomy of space' means that space continually acquires concreteness which is irreducible to social structural processe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geographical research must be the study on areal diffenti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relative autonomy of space. Locality is the unit space in which relative autonomy of space is realized.

Journal of Geography Education, 24, 1-24, 1990. 12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